

## [목상과 영적성숙]

### ⑩ 예수님을 닮아 가는 목상

강준민 목사 / 1998 / 페이지수: 2

목상의 목표는 지식을 늘리는데 있지 않다. 목상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때문에 말씀을 목상할 때 우리는 적용을 위한 몇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 물론 이 질문들이 목상하는 말씀마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질문들은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목상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질문들은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나는 다음의 질문들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목상한다.

하나님(성부 성자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새롭게 발견한 진리(영적 통찰력)는 무엇인가?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은 무엇인가?

내가 피해야 할 오류는 무엇인가?

내가 회개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어떤 것인가?

내가 간구해야 할 약속은 어떤 것인가?

#### 단순한 진리를 향한 질문

이 질문들이 너무나 단순하게 느껴질지 모른다. 그러나 진리는 단순한데 있다. 이 질문들은 성경을 보는 안목을 열어 줄 것이다. 목적 없이 성경을 읽는 것과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읽는 것은 그 결과에 있어서 하늘과 땅의 차이를 나타낸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관심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호 6:6). 둘째는,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것이다(롬 8:29). 셋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이루는 것이다(요 17:4). 이것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며 성경에 흐르고 있는 세 가지 큰 물줄기이다. 이 물줄기를 타야만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으며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다. 성령님은 이 세 물줄기를 타고 역사하신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요 5:39).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엡 4:13).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닮을 수 없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되며,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 가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최상의 목표는 단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로버트 맥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재능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재능 가운데 가장 탁월한 재능은 주님을 닮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주님을 닮은 인격에서 꽃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말씀 목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부흥이다. 하나님을 만날 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다(느 8장).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 영혼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시 19:7).

## 한 사람의 변화로 시작되는 열매

말씀 묵상의 초점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있지 않고 자신의 변화에 맞추어져 있다.

그때 다른 사람도 변화되고 환경도 변화되는 것이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변화되고 시대가 축복을 받는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축복을 받았고,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을 받았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전 인류가 영생에 이르는 길이 열렸다 (롬 5:17~19). 한 사람의 변화에 우선적인 초점을 두는 것이 영성을 추구하는 삶이다. 모든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레오 톨스토이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나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오늘의 시대상을 대변해주는 예언자적인 말이다.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힘쓰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자.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완수하자.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자.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자.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자.

친밀함의 결과는 열매다(요 15:5). 그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자. 내가 땀 흘려서 맺은 열매들을 다른 사람들이 와서 먹는 것을 보며 그것을 최상의 행복으로 삼자. 그것이 말씀 묵상의 목표이다.

\* 출처 : 도서출판 두란노